

소상공인 생애 전주기 촘촘하게 지원

전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명칭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로 변경해 개소… 종합적 지원센터 발돋움

전북도가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안정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나선다.

도는 구)일양병원 부지에서 소상공인희망센터의 명칭을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이하 '광역지원센터')로 변경해 14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광역지원센터는 코로나 경제폭풍 속에서 소상공인을 살리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창업·보육부터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폐업까지 소상공인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센터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도는 여러 고심 끝에 광역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청년 소상공인이 많은 전북대 인근의 구)일양병원 부지를 선택했다.

광역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을 '창업-

사업·폐업, 생애주기별 3단계+α'로 구분해 창업·보육부터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폐업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단계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아이템 밸류, 상권입지 분석 등 고객별 진단과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2단계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위해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2021년 신규사업)으로 ▲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는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찾아가 현장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해결하는 ▲'민생현장 솔루션'을 적극 운영하며, 텀보델 육성을 위한 ▲'스타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선정된 업체 사후관리로 ▲소상공인 브랜드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단계는 쇠퇴기로 접어든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1년 신규사업)을 통해 사업장 철거 및 집기 등 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한 진단, 컨설팅, 취업 또는 재창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파(α)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책수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궁금증 해소 및 불편사항 접수, 정책 견의 청구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문 콜센터'를 운영해 정책 수혜의 시작지대 제로를 목표로 둘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광역지원센터는 구호하고 치료한 조선시대의 활인서(活人署)와 같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보는 기관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영세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지원센터는 전주종합경기장 정문 맞은편 (구)일양병원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콜센터(1588-0700)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안내를 접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정읍 육용 오리농장, 출하 전 검사서 H5형 AI 항원 검출

전북도는 지난 10일 정읍시 정우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7,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오리가 출하되기 전 실시하는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전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1~3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현장에 초동대응팀을 급파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와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고병원성 확진시 AI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가금류 8만 4,000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탄 임대주택 현장점검 나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풍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 사장과 함께 단층 세대 시찰을 하고 있다.

전북도, 안전문화대상 공모전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안전문화대상'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전문화 대상'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간과 함께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

는 안전분야 최고의 시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삶의 방식을 개선하는 도민 운동인 '생활의 과학화'를 통한 청정 전북'사례로 응모했으며, 타 기관과 협화되는 시책 등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 안전의식을 향상시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올해 도는 도청 청사 1층 로비에 '생활의 과학화 안전체험장'을 설치해 도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감염병 예방, 심폐소생술, 원장기 체험 교육이 가능 토록 했으며, 솔잔 톤리기 등 비위생적 행동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한 외식문화 실천운동도 추진했다.

특히,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33개 기관 등 민관이 함께해 안전에 대한 도민 참여와 관심을 높였으며, 지난 2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북도, KBS 전주방송총국, 도교육청, 전북지방경찰청 등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환영

스피치·긴장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답교수
○ 전북대학 도본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전국스피치·웃음치료 전북회장
○ 전국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약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약간)	전주, 완주, 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약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약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아,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애)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새만금 자문단 해외분야 자문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 효율적 투자유치 수단·전략 발굴 위해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021년도 해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비대면(화상)으로 '새만금 자문단 해외분야 자문회의'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급변하는 산업 동향에 대응해 효율적인 투자유치 수단·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새만금청 해외 투자유치 관계자와 국가·지역별 전문가 12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에 돌아올 동기가 있는 기업을 검토하고,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끌고, 쟁기회를 다양화하는 방식의 비대면 마케팅과 웹 세미나·설명회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개발청도 국가별로 내실있는 기업, 유관 협회 및 기관들과 꾸준히 접촉할 수 있는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자문원들의 유익한 조언을 토대로 투자전략을 마련해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됐다. 또한, 군산·전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완성차 및 소재·부품 기업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만금의 3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새만금만의 투자프로젝트를 개발·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에 돌아온 기업을 검토하고,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끌고, 쟁기회를 다양화하는 방식의 비대면 마케팅과 웹 세미나·설명회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개발청도 국가별로 내실있는 기업, 유관 협회 및 기관들과 꾸준히 접촉할 수 있는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자문원들의 유익한 조언을 토대로 투자전략을 마련해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발전계획 이행 '우수'

전북도, 국토부 종합평가서 지자체 유일 2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0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종합평가에서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맞춤형 계획수립은 물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전국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도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함께 구축한 협업체계를 중심으로 종합발전계획에 담긴 추진과제의 이행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댄 결과, 특화발전을 비롯해 상생발전, 정주여건 등 타 혁신도시와 비교해 가장 많은 4개의 우수사례가 뽑혔다.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선정, 우수사례 최다 선정의 결과는 전북도가 그동안 도와 시·군, 이전공공기관들과 함께 상생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추진과제 발굴을 통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우수사례

발굴·이행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10월 수립한 전국혁신도시의 종합발전계획에 담긴 과제에 대한 2020년 한 해 동안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도는 이미 지난해 종합발전계획 종합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상호협력하는 관계 속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전병순 국장은 또 "앞으로도 도내 공공기관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소통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북혁신도시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명품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